

## 『칼 융의 「심리학과 종교」 읽기』 서평

정 지 련\*

1) 심리학뿐 아니라 종교학 분야에서도 고전으로 간주되는 칼 구스타프 융(Carl Gustav Jung, 1875~1961)의 『심리학과 종교』를 풀어 쓴 『칼 융의 「심리학과 종교」 읽기』(서울 : 세창 미디어 2015)의 출판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심리학과 종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일반 독자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이 책의 저자가 신학과 심리학에 관해서 오래 동안 천착한 김 성민 박사라는 사실은 이 책의 설득력과 신뢰성을 배가시킨다.

융은 종교학자나 신학자가 아니라 ‘분석심리학’이란 용어를 만들고 학파를 형성한 독창적인 심리학자다. 그러나 종교 없이 융의 사상을 논하기에는 그의 사상 전반에 그리스도교 신앙의 영향력이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융은 종교의 역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종교를 비판적으로 이해했던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와 달리 마음의 치유와 인격 형성에서 종교의 순기능을 높이 평가했다. 사실 마음의 치유라는 주제에서 종교는 심리학의 역사와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의 장구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비록 과학적인 방식은 아니지만 인류가 자신의 본성을 되돌아보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해 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융의 사상에 내재된 종교사상은 정통 심리학자들에게 비판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융의 주장은 검증될 수 없는 비과학적인 이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종교와 신화는 물론이고 영지주의, 연금술, 만다라 등을 언급하며 마음의 깊이를 풀어쓴 글들은 모호하고 불투명해서 뚜렷한 체계나 개념을 정립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정신의학자 앤터니 스토(Anthony Storr, 1920~2001)는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한다. “융이 이처럼 도외시된 것은 자신의 사상을 쉽게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융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나

\*안산부곡감리교회 목사. 스위스 바젤대학교 신학부 졸업. Th.D.

의 저술에 대해서 어떤 뜨거운 공감을 기대한 적이 없다. ... 나는 누구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실을 말해야 했다. 특히 연구 초기에는 완전히 외톨이가 된 느낌을 자주 받았다. 나는 사람들이 싫어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융의 이러한 서술 방식은 의도적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체계적인 이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다만 있는 사실을 기술하고, 토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견해를 제시할 뿐이다.” 사실 융은 자신의 이론이 프로이트의 이론처럼 실증적인 가설로 변질되는 것을 막으려 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마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이에 상응하는 서술방식을 요청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융의 의도에 적지 않은 심리학자들이 반발했지만, 공감하고 지지한 심리학자와 지성인들도 적지 않다. 물리학자 파울리(Wolfgang Ernst Pauli, 1900~1958)는 융과 함께 ‘동시성’ 이론을 연구했고, 종교학자 미르체아 엘리아데(Mircea Eliade, 1907~1986)와 신화학자 조지프 캠벨(Joseph Campbell, 1904~1987)은 융의 이론을 종교와 신화 연구에 적용해 커다란 성과를 이루어냈다. 사실 융의 사상은 정통 심리학자들 보다는 마음의 깊이를 들여다 본 종교인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심리학과 종교』를 풀어낸 김성민 박사의 『칼 융의 「심리학과 종교」 읽기』도 융의 글쓰기 방식을 따르는 것처럼 보인다. 굳이 논리라는 용어를 사용하자면, 융이나 저자는 모두 연역 논리가 아닌 귀납 논리를 자신의 논리로 삼는 것처럼 보인다. 즉 독자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기 보다는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실들을 주제별로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의 참여와 반응을-비록 명시적이지는 않지만-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2) 이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는 제1부에서 종교에 대한 융의 전반적인 이해를 제시한 다음, 제2부에서 융의 『심리학과 종교』 해제(解除)를 신고 있다. 그리고 제3부는 융이 『심리학과 종교』 이후 전개시켜 나간 종교 사상을 소개한다.

융은 종교에 대단히 우호적이다. 그에게 종교와 심리학의 목표는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 인격 통합이 바로 그것이다. 저자는 융의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지금 인류에게 시급한 문제는 그림자의 통합이며, 그것은 사람들이 내면에 있는 신성을 의식화할 때 가능하다는 점일 것이다.”(19쪽)

자아가 무의식의 그림자를 무시하거나 억압하면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율적으로 자아의 방어망을 뚫고 나와 개인뿐 아니라 사회도 파괴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따라서 무의식의 심층 차원에 귀를 기울이면서 개인적 무의식의 그림자를 통합할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의식의 깊이에 현존하는 자기(Self)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실현하도록 하는 일이야말로 종교와 심리학이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라는 것이다.

무의식이란 의식이 발달하기 전 상태인 유아기 때 받았던 감정이나 기억들, 또는 성인이 되어서도 의식에 의해 억압된 감정들이나 근원을 알 수 없는 어둠의 충동들로 구성되는데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것을 개인적 무의식 내에 존재하는 그림자라고 부른다. 현대 심리학은 이러한 그림자로부터 때로는 악한 생각이나 유치한 생각, 또는 과도한 분노의 감정이 의식의 방어망을 뚫고 인간을 사로잡으려 하는 현상을 주시하며 무의식의 자율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융은 그림자를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는다. 즉 이러한 현상들, 즉 유치한 생각이나 분노의 충동들을 무의식이 의식에 보내는 사인으로 이해한다. 무의식을 받아들여 전체적인 통합을 이루라는 요청 말이다. 따라서 융은 무의식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기 성찰, 내면 성찰을 중시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종교적 수행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융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편적이고 원초적인 차원의 집단적 무의식에 초점을 맞추며, 원형(Archetype), 자기(Self), 개성화(Individuation)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무의식의 깊이에서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져 있는 신성이 온전한 인격 통합의 동인임을 밝힌다.

이러한 융의 사상은 고대 동방교회의 사상과 실천을 연상시켜준다. 특히 동방교회 수도자들은 고독과 침묵 속에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악한 생각들을 분별하고 이러한 생각들이 사라진 상태인 고요함(hesychia)에 이르는 것을 수행의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그들은 이러한 생각들이 사라질 때까지 끝없이 다가오는 악한 생각들을 바라보고, 때로는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러한 생각들이 사라지는 고요한 상태를 추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고요함 속에서 드러나는 신성의 빛을 바라보는 것을 기도라 불렀다. 이러한 수행(Praxis)과 기도(Theoria)를 동방 수도자 전통은 관상(contemplation)이라고 부른다.

용의 사상이 진정 종교적인 것은 인격 통합이나 치유를-우리 안에 존재하는 신인 - 자기나 신적 원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말하는데 있다. 저자는 이러한 사실을 주시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아에는 별다른 능력이 없고 치료는 자기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용의 심리학은 종교와 대단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15쪽)

물론 종교인의 관점에서는-종교를 무의식의 자율적 기능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는-용이 결국에는 신의 존재를 무의식 속에 해소시키고 마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을 펼칠 수도 있을 것이다. 신의 존재 또한 언젠가는 인간 무의식의 작용으로 설명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용이 종교를 심리학에 종속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힌다. “그가 그 신을 단지 인간의 심리학적 작용에 의한 것으로만 생각한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그는 신의 작용을 원형적인 것의 출현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용에게서 원형은 심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체험될 수 있는 정신양이다. 정신적이지만 실체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것이라는 말이다”(16~17쪽)

사실 용의 사상 전반에는 성서의 성육신 사상이 작용하고 있다. 저자도 이러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기에서 그는 인류의 정신사에서 신관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고찰하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 개념은 인간이 불합리한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내면에 있는 신성을 완성하는 탁월한 개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현대인은 앞으로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였듯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신성을 의식화하여 계속되는 성육신을 이루어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31쪽)

3) 김성민 박사는 용 사상의 종교성을 강조하면서 용의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현대인이 이렇게 자신의 안에 있는 신성을 더 의식화하고 그것을 실현시킬 때,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악을 포용하지만 그 악에 휩쓸리지 않고 더 성숙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 그것이 용이 말한 개성화된 삶이며,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화된 삶의 모습이다.”(170쪽)

그러나 용이 그리스도교에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는 강한 어조로 현대 그리스도교가 인격 통합의 매개가 되는 올바른 신의 이미지를 제시해주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어느 누구도 구속되었다고 느끼지 못하는데, 그리스도의 죽

음이 어떻게 사람들을 구속시킬 수 있겠는가? … 그래서 나는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더 발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154쪽)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교의 삼위일체론이 의식과 무의식, 선과 악, 남성상과 여성상 등의 대극적 이미지들을 통합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삼위일체론에 대한 융의 비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융에 의하면, 신은 양가적 존재이다. 신은 아버지이며 어머니이고 현존하지만 부재하며 선하지만 악하기도 하는 등 수많은 대극적 이미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 이 양가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사의 모든 대극성을 통합하게 하는 기초가 된다고 주장하였다.”(43쪽)

융은 대안으로서 사위일체 신상을 제시한다. “사위일체 신상은 그 안에 악의 원리가 포함되어 있지만, 악이 선과 통합되어 있어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이 지은 죄에 짓눌리지 않고 그의 악을 수용하면서 선의 능력으로 악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155쪽)

융의 신론이 페르시아 종교가 주장하는 선한 신과 악한 신의 대립을 하나의 원리로 통합하려는 신론, 즉 형이상학적 악을 포괄하려는 신론을 제시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융이 말하는 악은 형이상학적 악이 아니라 심리적 악이기 때문이다. “악은 인간의 정신 속에 있는 발달하지 않은 요소로서 그 자체로서는 악하지 않지만 그것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아를 통하여 나타날 때 원시성과 미숙성 때문에 악하게 경험되는 그림자 인격이다.”(159쪽)

융이 말하려는 신론은 어둠의 심연을 자신 안에 포함하는 신론일 것이다. 그렇다면 융의 신론이 그리스도교의 신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교 신앙도 하나님의 인격성과 윤리성만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교는 처음부터 부정신학의 전통(apophatic theology)을 견지해 왔다. 즉 하나님의 본질을 “절대적 무지의 어둠 속에 계시는 알려지지 않은 분”으로 고백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부정신학이 한동안-지성을 신앙의 최고 원리로 부각시켰던-중세의 스콜라 신학에 가려진 적은 있었다. 그러나 스콜라 신학이 주도했던 중세 시대에도 수도원 전통과 루터 등은 스콜라 신학을 비판하면서 부정신학을 다시 전면에 내세웠다. 그리고 융이 비판했던 삼위일체론은 이러한 부정신학의 전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승하고 심화시킨 신론이다. 융의 삼위일체론 비판은 오히려 삼위일체론이 비판하고 수정하려 했던-한 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강조하는-윤리적 유일신론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용이 제시하는 사위일체 신상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삼위일체론은 그 어떤 다른 것으로 대치할 수 있는 상징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의 의도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을 감안한다면, 용의 삼위일체론 비판을-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본래적 신 이미지인 삼위일체론을 올바르게 숙고하도록 요청하는-제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4) 용의 분석심리학이 추구하는 인격통합의 길은 수행과 기도를 통해-마음에 다가오는 모든 생각들과 충동들을 끝없이 비울 때 나타나는 신적인 빛을 바라보려는-고대 수도자들의 관상 전통과 매우 유사해 보인다. 용이 말하는 개성화 과정 역시 “인간의 내면에 있는 신적 요소라 할 수 있는 자기의 실현”(72쪽) 외의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용이 말하는 개성화나 자기실현을 고대 동방 교회는 신화(theosis 神化)로 부른다. 신화는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려는 교만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또 비워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신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겸손의 실천이다. 그렇다면 동방 교회가 말하는 신화와 용이 말하는 개성화는 결국 마음의 깊이와 신비에 도달하고 그곳에서 신성의 빛에 의해 인격이 통합되는 성육신의 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물론 양자의 방법은 다르며, 세부적으로는 적지 않은 부분에서 갈등을 겪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양자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자면 수도자들의 관상 기도 전통이 용의 분석심리학에 ‘새로운 기술’을 전수해 줄 수 있으며, 분석심리학 역시 수도원 전통에 ‘새로운 발견’을 전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성민 박사의 『칼 용의 「심리학과 종교」읽기』는 심리학과 종교, 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심리학적 방법으로 마음의 깊이를 규명하려는 분석심리학과 수행과 기도를 통해 마음의 깊이에서 신앙의 신비를 찾으려는 수도원 전통의 가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와 관심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책이 학계와 독자들에게 정당한 관심을 받기를 바라면서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수고한 저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한다.